온라인쇼핑 모바일 비중 64% 돌파

음식서비스 · 가전 · 전자 · 통신기기 큰 폭 증가
전년대비 거래액 1.4조 늘어… 꾸준히 증가 추세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이 64%를 돌파했다.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와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 거래액이 계속 늘어나는 덕분이다.

통계청이 3일 공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올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5966억원이다. 이 중 64.4%(6조1817억원)가 모바일이다. 역대 최고치다.

모바일 비중은 전월(63.3%)보다 1.1%포인트(P), 전년(59.5%)보다 4.9%P 상승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은 2018년 6월 60.5%를 기록, 60% 선을 넘긴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 2월 모바일 거래액 중에서는 '음식서비스'가 2819억원(증감률 97.5%)으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675억원(40.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음식서비스에는 배달음식 판매액이, 가전·전자·통신기기에는 공기청정기가 포함된다.

'화장품(1208억원, 28.1%)', '여행 및 교통서비스(1194억원, 17.4%)' 거래액도 증가 폭이 컸다. 'e쿠폰서비스(987억원, 91.1%)'는 거래액 증가율이 높았다. '농·축·수산물(-9.0%)'은 감소했다.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6.4%(1조3553억원) 증가했다.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음식서비스(2930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2354억원)의 거래액 증가 폭이 컸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메모리 등 부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1461억원)'도 많이 거래됐다.

증감률은 음식서비스(90.2%), e쿠폰서비스(78.2%)가 높았다.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719억원(24.7%) 감소했다.

민경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가격 할인 행사, 배달음식 다양화 등으로 음식서비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안티폴루션(Anti-Pollution·오염 방지) 가전제품 등이 많이 팔렸다"고 전했다.

온라인쇼핑 유통경로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상품을 고루 판매하는 '종합몰' 거래액이 16.4% 증가한 9조5966억원을 차지했다. 특정 상품군만 파는 '전문몰'은 20.4% 증가한 3조3422억원이다. 온라인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은 18.1% 증가한 6조3980억원, 오프라인에서도 매장을 운영하는 '온·오프라인병행몰'은 13.2% 증가한 3조1986억원이다.

통계청은 1일부터 말일까지 1000여개 온라인쇼핑 운영업체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집계한다. 조사 대상 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방문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항목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해외상품 거래내역 등이다.

/뉴시스

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내년부터 본격 시행

공정위, 무상수리비용 등 우려 전달한 업계 의견 일부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무상수리 등으로 인한 비용측면의 우려를 제기한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약정된 사용기간이 2년 가량이지만 그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그쳐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보증기간은 늘리되 소모품으로 제품주기가 짧은 배터리의 경우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상 교환·환불을 노리는 소위 '블랙 컨슈머'가 나타나 제조업체들의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환불 기간은 품질보증기간 중 수리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동일 부품에 대해 3회 이상, 다수 부품에 대해 5회 이상 고장이 나면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데스크탑 컴퓨터에만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있었고 노트북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태블릿도 별도의 기준이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각 1년, 4년으로 명시됐다.

한편 일반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 기준을 KTX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도 이번에 확정됐다. 그간 일반열차는 지연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경우 환급금액이 없었다. 40분 이상은 돼야 12.5%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경우 KTX와 동일하게 12.5%까지 환급된다.

또 4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지연될 경우 25%를, 1시간 이상부터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열차가 떠나고 난 뒤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의 환불기준도 명확해졌다.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는 85%까지 환급된다. 경과 후 1시간까지는 60%,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30%가 환급된다.

/뉴시스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P2P금융 증서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P2P금융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NH스마트고지서로 조회할 수 있는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NH스마트고지서는 국세, 지방세, 범칙금, 아파트관리비, NH농협카드, NH농협생명 등 각종 청구서 및 안내장을 스마트폰으로 알림 받고, 즉시 납부 가능한 앱 서비스이다.

원리금 수취권 증서는 P2P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회수할 권리가 기록된 서류로 현재는 투자자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거나 웹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는 P2P업체가 발행하는 원리금 수취권의 조작과 변경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공유하고, 금융보안 클라우드(IDC센터)를 거쳐 투자자에게 NH스마트고지서로 내역을 제공하는 융·복합 블록체인 P2P금융 서비스이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의 원리금 수취증서 제공방법'도 특허출원 중에 있다. 서비스는 'P2P 원리금 수취권 증서' 발행 과정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P2P금융 생태계에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NH농협은행이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

한편, 금차에는 농협은행의 OPEN API를 이용하는 P2P금융사 중 팝펀딩과 모우다, 미드레이트에 적용하고 이후 참여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3일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이 '무배당 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 출시를 기념해 정읍농협을 방문, 1호로 가입했다.

"100세까지 보장 해드려요"

농협손해보험, 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강희상)은 3일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이 '무배당 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 출시를 기념해 정읍농협을 방문,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은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후유장애·3대질병(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장기요양진단비 등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을 선택하면 같은 보장이라도 최대 30% 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다.

질병후유장해(80%미만)특약을 최대 75세까지 가입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유사암진단에 대한 보장금액을 선택 할 수 있어 유사암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출시됐다.

(무)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은 보험료 변동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북 관내 농·축협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公 전북, 영농대비 지하수시설물 일제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3월8일부터 공사관리 지하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정 258개소, 집수정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정상 작동여부,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현지 점검 및 확인을 통해 재해를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봄철 강수량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전북지역본부는 재난대책과 지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ADB "韓, 19~20년 경제성장률 2.5% 유지할 것"

아시아개발은행(ADB)이 3일 한국의 2019~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씩으로 제시했다.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ADO) 발표를 통해서다. 이 기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4%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2020년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각각 5.7%, 5.6%다. 2019년 전망치의 경우 지난해 12월 당시(5.8%)보다 0.1%포인트(P) 하향했다.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몽골(2019년 6.7%, 2020년 6.3%)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았다.

이 기간 홍콩의 전망치는 각각 2.5%씩으로 한국과 같았다. 대만이 2.2%, 2.0%로 가장 낮았다.

회원국 전체로 보면 2019년에는 타지키스탄·캄보디아(7.0%)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았다. 2020년에는 남아시아(6.9%)와 캄보디아(6.8%), 미얀마(6.8%)가 고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2019~2020년 전망치 평균은 각각 6.2%, 6.1%다.

ADB는 향후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 위험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뉴시스